

J프로젝트 덩치 줄이고 새만금 연계사업 발굴 나서야

호남, 상생이 미래다

민선 6기
광주일보의 제안

<2부> 4대 현안 함께 풀자

- ① 광주·무안·군산공항 갈등
- ② KTX 호남선 경쟁력 확보
- ③ 3개 시·도 관광벨트 구축
- ④ J프로젝트·새만금 활성화

J프로젝트, 중국·민간 투자 부진...사업자도 경영난

새만금, KTX 개통 후 새로운 도시 조성 '기회'로

전남과 전북은 모두 산업화에서 소외되면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중국과 가깝다는 공통된 장점이 있다. 또 인구 감소, 산업기반 취약, 젊은층 유출 등의 위기 속에 지역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절실했었다는 점도 닮았다.

이러한 유사한 요소들을 가진 전남과 전북은 각기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각기 추진하고 있다.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새만금사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개발 대상부터 개발 주체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전남은 뒤늦게 출발한 J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새만금 사업 협조에 부정적이었다. 지난 2009년 전북이 새만금상풍터래소 유치에 나서자 광주시가 사업 철학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고, 새만금과 J프로젝트가 중복된다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에 있어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광주·전남과 전북이 나누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J프로젝트는 민간 투자가 예상외로 저조하면서 전남도가 예산까지 투자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해 민선 6기 직무인수위원회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잠정보류를 제

안하기도 했다.

새만금은 2020년 1단계, 2030년 2단계 완공 예정이지만,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호남 갈등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J프로젝트의 구조조정과 함께 새만금 사업의 부분적인 연계 가능성을 찾아 상생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연구와 사업 발굴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사업 대상지가 1시간 이내로 시간적 범위가 좁혀지고, 모두 중국자본의 투자를 기대하면서, 국내의 새로운 도시 조성이 나서고 있다는 점 등이 기회 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J프로젝트, '구조조정' 불가피=J프로젝트는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33.9㎢ 면적에 2006년부터 오는 2025

년까지 20년간 사업비 1조8664억원을 투입해 삼포·삼호·구성지구 등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만큼 생산유발, 고용유발, 소득유발 등의 성과가 기대됐으나 애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민간자본, 특히 기대가 컸던 중국 자본 참여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카보(주), 서남해안레저(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등이 모두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새만금, 호남 미래 비전 될 수 있나=호남 최대 규모의 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국비 10조9000억원 등 총 사업비 22조2000억원을 들여 분당인구 19.6만명의 20배 크기인 401㎢ 산업·과학·도시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를 연결하

는 방조제 33.9km를 조성해 만들어진 부지에 중국 크루즈 전용 항구 및 새만금 공항 설치, 한·중 경협단지 추진에 따른 중국 특구 조성,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특별법에 따른 조세 감면구역 설정 등을 통해 동아시아권 경제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광주·전남이 전북을 지나치게 견제하면서 이 국가사업마저도 예산을 제 때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사업, 전남의 J프로젝트, 전북의 새만금 사업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면서 호남 미래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흥·강진·영암 '상생의 손' 잡았다

정책협의회 구성 7대사업 추진

- 수도권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
- 세종시 공동출장소 설치 운영
- 웰빙 농산물 유통망 구축 등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상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흥군은 17일 "김성 장흥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등이 이날 오전 강진군청에 모여 '3군 상생 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뒤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 군수들은 낙후된 전남 중남부권 발전을 위해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 공동출장소 설치, 수도권 유학생을 위한 공동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웰빙 농산물 유통망 구축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공동개발 운영 ▲공무원 교류 근무 활성화 ▲지역축제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등 7개 사항을 합의했다.

3군 세종 사무소는 각 군당 6명 1급, 7급 1명 등 2명을 배치, 출장 인사 및 중앙부처 인맥관리, 지자체 홍보 활동 등을 맡게 된다.

또 3개 군이 각 지자체당 20억원씩 총 60억원을 들여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근교에 수도권으로 전학하는 대학생들의 공동 기숙사인 '희망학숙(가칭)'을 건



전동평 영암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김성 장흥군수(사진 왼쪽부터)가 17일 강진군청에서 첫 상생 협력 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남 중남부권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호남 상생이 지역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인구나 재정이 열악한 기초 지자체들도 상생 협력을 구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진군 제공>

립,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들의 혁신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 창출과 연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상생 발전도모를 위해 각 군당 2명(6급) 공무원을 1년간 상호 교류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3개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가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남부권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나아가 보성군과 업무공유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거적인 지역주의를 버리고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공생과 상생의 길을 함께해야 진정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김성 장흥군수, 전동평

영암군수와 함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해 10년, 20년 후에도 공동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3개군 단체장들의 협의회에 앞서 지난 14일 강진군청에서 기획감사실장들이 참여하는 사전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혁신도시 호남 최대 아울렛 가시화

강명구 신세계사이먼 대표 전남도 방문 "입지 결정되면 투자"

광주·전남이 공동조성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호남권 최대 프리미엄 아울렛(쇼핑센터) 투자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지난 3월 투자의향서(LOI)를 교환한 신세계사이먼사의 강명구 대표가 이날 도청을 방문해 이날도 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입지가 결정되는 대로 투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경기도 여주시, 파주시, 부산시에서 각각 성업 중이다.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개장한 이래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 쇼핑관광객을 대규모로 끌어들이며 명실공히 국내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 트렌드를 대표하는 소비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2013년 말 기준 누적 방문객 2600만명을 돌파했다. 2008년에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아울렛으로, 2011년에는 월간 순 방문객 수가 2500만 명에 이르는 세계적인 블로그 미디어인 허핑턴포스트가 선정한 세계 10대 아울렛으로 뽑혀 국내외 쇼핑,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인정받고 있다.

파주와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역시 평일 약 1만5000~2만명 가량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고, 주말 4만명 정도의 고객이 꾸준히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낙연 도지사는 "아울렛 입점으로 나주가 유통서비스산업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한국인 행복수준 주요 20개국 중 19위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수준을 조사했더니 한국은 19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영국의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모리에 따르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64%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해 국민이 느끼는 행복수준이 최하위 스페인(59%) 다음으로 낮게 나왔다.

스웨덴은 행복하다는 답변 비율이

88%에 달해 전체 조사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와 호주는 각각 86%와 85%로 2위와 3위에 올랐다.

국가별로 단순한 삶을 동경한 비율은 중국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폴란드(76%), 이탈리아(70%), 인도(69%)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이 부문 응답률이 50%로 일본(55%), 호주(54%), 영국(53%)에 이어 17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레인드림'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밝은광주안과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분 야 : 간호조무사, 검안사, 코디네이터(데스크,상담)
조 건 : 성별, 나이, 경력 무관
담당자 : 062) 351-9934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덕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밝은광주안과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금지원
- ▶ 대출한도는 최고 지원
-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서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이병 안동경

전무 하현춘

광주지역 자산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연세 정예금 금리 연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사업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